

경영저널

21세기 글로벌 지식경제의 새로운 패러다임

COVER STORY / 한동수 청송군수

정책조명 / 대구·경북 스토리텔링 본고장 '우뚝'

포커스 리딩 / 글로벌 금융시장 '환율전쟁' 격화

역사문화탐방 / 99칸 청송 심씨 송소고택

핫이슈 Cheongsong / 청송, 글로벌 슬로시티 부푼 꿈

청호평론 / 대구·경북 행정통합 요원한가.

재테크 / 3분기 해외주식펀드 수익률 곤두박질

지자체는지금 / 대구 기초자치단체, 대형마트 입점 저지 총력



»» Photo Essay 주산지(注山池)

글·이한나 기자

겨울 초입 11월 주산지
 북녘바람 찬 기운 몰아치니
 가는 가을 아쉬워 홍엽(紅葉)물결 밀려온다.
 붉디붉은 저 단풍 빛깔 사라지면
 물 속 저 왕버들 곁에도 고독한 겨울 오려나.



사진제공/청송군

경영저널 www.managementjournal.co.kr 통권 제28호

발행인 이진구 | 편집인 조종성 | 등록번호 대구라07691 | 창간 2007년 11월 5일 | 편집위원 윤일형, 정성민, 장승욱 | 취재부장 서기대 | 취재기자 홍순대, 이종수, 이광희, 최우혁

편집 이한나 | 사진 김기환 | 등록일자 2011년 3월 22일 | 주소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8길 22 TEL 053)766-1368 | FAX 053)766-1356

인쇄 삼영정밀인쇄사 | 가격 5,000원

C

Contents

- 02 _ Photo essay / 주산지(注山池)
- 04 _ News wide / 국토부, 내년도 예산안 편성
- 06 _ Economic trend / “은행권 ‘이자늘음’ 과하다”
- 08 _ Cover story / 한동수 청송군수
- 12 _ 정책조명 / 대구·경북 스토리텔링 본고장 ‘우뚝’
- 14 _ Focus reading / 글로벌 금융시장 ‘환율전쟁’ 격화
- 18 _ 법령해설 / 개시시점지가 산정 기준
- 20 _ 투게더 피플 / 경북농협봉사회 ‘나눔 경영’ 실천 앞장
- 21 _ 역사문화탐방 / 99칸 청송 심씨 송소고택, 체험형 관광 프로그램 ‘다채’
- 22 _ 핫이슈 Cheongsong / 청송, 글로벌 슬로시티 부문 꿈
- 24 _ 축제의 고장 Cheongsong / 수달래·사과 축제 전국적인 명성
- 25 _ Cheongsong 특산품 / 청송사과·옹기·한지 ‘원더풀’
- 26 _ 청호평론 / 대구·경북 행정통합 요원한가
- 27 _ Travel sketch / 국립공원 주왕산(周王山)
- 28 _ 재테크 / 3분기 해외주식펀드 수익률 곤두박질
- 30 _ Life style / 유통가 ‘미니상품’ 인기
- 32 _ 전문가 기고 / 김종기 중소기업진흥공단 대구경북지역본부 산업팀장
- 33 _ 지자체는 지금 / 대구 기초자치단체, 대형마트 입점 저지 총력
- 34 _ 통계로 보는 대구·경북 농어업 / 올해 경북 고추재배면적 다소 감소

〈정기구독 안내〉

정기구독료 : 연 48,000원

신청 방법 : 전화, 053) 766-1368

이메일, kepiglobal@kepi.or.kr

성명, 주소, 연락처를 기재해 주세요.

(기관일 경우 기관명, 부서명, 담당자 성명 기재)

입금 계좌 : 대구은행 225-12-003611

국민은행 698301-04-034744 (주)경영저널

〈독자 투고 받습니다〉

경영저널은 독자 투고를 받습니다. 정치·경제·사회·문화에 대한 칼럼 및 평론을 200자 원고지 5-7매 또는 A4지 1장(글자10포인트) 분량으로 보내주시면 채택된 분에게는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해 드립니다. 독자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보내실 곳 :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8길 22
706-842 경영저널 편집국
TEL. 053) 766-1368
FAX. 053) 766-1356
독자기고팀(kepiglobal@kepi.or.kr)

국토부, 내년도 예산안 편성



국토해양부는 고속철도, 고속도로 등 국가기간교통망 확충과 평창동계올림픽 등 국책사업의 차질 없는 지원을 위해 내년도 예산안을 21조9천억원으로 편성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는 올 예산 23조6천억원보다 1조7천억원 감소한 것이지만, 4대강 살리기와 여수EXPO 사업 등 대형국책사업 소요감소분을 감안할 땐 1조4천억원 증액된 것이다.

내년도 예산안 중 SOC는 총 21조5천억원으로, 이 중 도로 7조3천억원, 철도 5조원, 도시철도 1조원, 수자원 2조9천억원, 해운·항만 1조6천억원 등에 각각 투자될 예정이다. SOC예산은 지난 2008년 이후 경제위기 조기 극복을 위해 추경편성 등을 통해 한시적으로 대폭 증액됐지만, 내년도 예산안은 경제위기

극복 과정에서 악화된 재정건전성을 조기에 회복하면서 지역 경제 활성화와 국책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적정 수준의 투자규모를 유지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편성됐다고 국토해양부는 밝혔다.

내년도 예산안 편성 기본방향을 살펴보면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완공과 성과확산 △SOC 투자효율화와 안전투자 강화 △핵심국책사업 지원 및 지역경쟁력 제고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서민지원 강화 △해양산업 성장기반 확충 △녹색성장 및 미래대비 투자 확대에 비중을 많이 둔 것으로 분석된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재정건전성 달성의 큰 틀 안에서 적정 수준의 SOC투자를 펼칠 것”이라면서 “건설경기 침체 장기화와 최근 불거진 글로벌 재정위기에 적극 대응해 지역고용 창출과 지속적인 성장기반을 확보하는데 힘을 보탬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경부, 2단계 광해방지기본계획 수립

정부가 광산개발과정에서 오염된 산림과 토지에 대해 복구사업을 강화하기로 했다. 지식경제부는 향후 5년간 이 사업에 총 5천353억원을 투자하는 ‘제2단계 광해방지기본계획’을 수립했다고 최근 밝혔다.

내년부터 오는 2016년까지 추진되는 이번 사업은 광해 방지 및 복구가 시급한 1천70곳(가행광산 386곳, 폐금속광 423곳,



폐탄광 220곳, 폐석면광 41곳)이 대상이다.

지경부는 우선 광산개발로 오염된 광산과 주변지역의 산림·토지복구에 2천172억원을 투입하고, 1천461ha를 경제적 가치가 있는 산림·토지로 복원하기로 했다. 또 광해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폐석·광물찌꺼기 유실방지에 884억원, 수질개선사업에 821억원을 각각 투입하기로 했다.

지경부는 앞서 지난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년간 광해방지 기본계획에 의거해 광해 방지 및 복구사업을 추진했다. 이 기간 동안 3천916억원을 투입해 가행광산 293곳, 폐금속광 563곳, 폐탄광 299곳, 폐석면광 35곳을 대상으로 광해방지사업을 추진해 중금속 등에 오염된 산림과 토지 264ha를 복구하는 성과를 거뒀다. 지경부는 이런 사업 성과를 토대로 오는 2026년까지 폐광산에 대한 광해방지사업을 완료하는 등 친환경적인 광산개발을 도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관계부처간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강화하고, 정부와 광산권자 등을 대상으로 투자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지경부는 광해의 근본적인 차단을 위해 친환경·반영구적인 광해방지시설을 추진하고, 관련시설의 지속적인 사후관리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농식품부, 곤충자원 개발 박차

농림수산식품부가 미래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떠오른 곤충자원 개발에 본격 나선다. 농식품부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간 곤충산업 육성을 위해 '지역곤충자원산업화지원센터'의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비 항목으로 내년도 예산에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지역곤충자원산업화지원센터' 건립 사업에는 1곳당 총 5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며, 지원조건은 국고 50%와 지방비 50%다. 지역별로 특화된 곤충자원의 산업화를 위해 건립되는 이 센터는 지역간 곤충산업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3곳을 권역별로 건립할 계획이며, 내년에는 우선 센터 1곳 건립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할 예정이다.

내년도 정부예산안이 국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되면 내년 1

분기 내에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사업자 공모를 통해 대상자를 선발해 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조치는 곤충이 지구상 최대 미개발 생물자원으로 재평가되면서 오는 2015년까지 국내 곤충산업의 시장규모를 3천억원까지 확대하기 위한 구상에서 비롯됐다고 농식품부 측은 설명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연차적으로 건립 예정인 센터를 중심으로 유용한 곤충자원 탐색과 개발을 강화하는 동시에 각 기관간 네트워크를 활용해 곤충산업을 미래 고부가가치 성장산업으로 육성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과부 내년도 예산 52조9천426억원 편성

교육과학기술부는 내년도 교육·과학기술분야 예산을 52조9천426억원으로 편성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는 올 예산(48조4천336억원)보다 9.3%(4조5천90억원) 늘어난 것이다. 이번 예산안은 정기국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우선 가장 비중이 큰 유·초·중등 예산은 38조6천72억원으로 올해보다 8.8% 늘어났으며, 대학생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한 국가장학금 신설 등의 영향으로 고등교육 예산도 18.1% 증가한 5조8천716억원으로 확대됐다.

이와 함께 1조5천억원 규모의 국가장학금은 기초생활수급대상자나 그 가구에 속한 학생에게 주던데서 소득 3분위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과학기술분야 예산도 다소 늘어났다. 기술개발 및 안정적 연구환경 조성과 과학기술 인재양성 등을 위해 올해보다 12.2% 늘어난 4조1천836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을 위해 2천100억원을 지원하고, 바이오·의료기술 개발에도 1천301억원을 책정했다. 이색 예산도 새로 편성했는데,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졸업생이 취업 후 경력을 개발해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재직자 맞춤형 교육 과정이나 기초학력보충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선취업·후진학 시스템구축' 사업에 12억원을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홍순대 정책전문기자

“은행권 ‘이자놀이’ 과하다”

올해 순이익 20조 넘을 듯
...예대마진 높여 수익챙기기 열중 비난



국내 은행권이 고물가와 경기 불황에 고통받고 있는 서민 경제를 외면한 채 예대마진을 높여 ‘이자놀이’에 취중하고 있다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대구·경북의 올 4분기(10~12월) 수출 규모가 큰 폭 둔화될 것이란 어두운 전망이 나왔다. 지역 주력업종인 건설업의 경기도 불황이 지속될 것이란 비관론이 제기되고 있다.

은행권 '이자늘음' 추중

국내 은행들이 올해 사상 최대 실적을 거둘 전망이다. 하지만 이를 바라보는 서민들의 시선은 그다지 곱지만은 않다.

예대마진을 높여 '이자늘음'에 추중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불멘소리가 심심찮게 터져 나오고 있다.

금융업계에 따르면 지난 3분기(7~9월) KB·우리·신한·하나·기업·외환·대구·부산은행 등 국내 8개 은행과 금융지주의 순이익 추정 평균치는 3조2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추세가 4분기에도 이어진다면 농협과 수협 등을 포함한 국내 18개 은행의 올해 순이익은 20조원에 육박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는 사상 최대였던 지난 2007년의 15조원을 크게 상회하는 것이다.

앞서 국내 은행들은 지난 1분기(1~3월)와 2분기(4~6월)에도 각각 4조5천억원과 5조5천억원의 순이익을 거둔 바 있다.

국내 은행들이 이처럼 연초에 비해 연말로 갈수록 '실적 규모'가 확대되고 있는 것은 예금금리와 대출금리의 차이로 발생하는 예대마진을 높인 게 주된 원인으로 풀이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8월 신규 가계대출 금리는 5.58%로, 전달인 7월(5.46%)보다 0.12포인트 올랐다. 올 1월부터 7월까지 상승률 0.16% 포인트에 비해 단기간에 상승폭이 컸던 셈이다. 이와 달리 같은 기간 예금금리는 오히려 낮아져, 8월 신규 저축성예금 금리는 전달보다 0.03포인트 떨어진 3.76%에 그쳤다. 금융당국의 가계 대출 규제 강화 움직임에 맞춰 대출금리는 손쉽게 올린 반면 예금금리는 반대로 낮추면서 고물가와 경기 불황에 고통받고 있는 서민살림살이는 외면한 채 '실속 챙기기'에만 열중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는 것이다.

수출 증가세 둔화 전망

4분기(10~12월) 대구·경북의 수출 증가세가 한풀 꺾일 것이라는 어두운 전망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 대구경북지역본부가 최근 발표한 '대구·경북 수출산업경기전망(EBSI)' 조사에 따르면 4분기 대구·경북의 수출경기전망지수(EBSI)는 98.3을 기록, 전분기인 3분기(7~9)보다 19.7 포인트 하락했다. 이는 지난 2009년 3분기 이후 10분기만에 처음으로 기준치 100을 밑돈 것이다. EBSI지수가 100이하면 수출경기가 악화될 것으로 전망하는 업체가 많음을, 100 이상이면 그 반대를 의미한다. EBSI가 이처럼 큰 폭으

로 떨어진 데는 미국과 일본의 국가 신용 등급 하락과 함께 유럽 재정위기 악화 등 글로벌 경기둔화 우려감이 증폭되고 있는 것이 주된 약재로 분석된다고 무협 대구경북본부 측은 밝혔다.

항목별로 대부분의 EBSI가 하락한 가운데 3분기대비 수출계약은 136.5에서 106.3으로, 수출상품 제조원가는 71.4에서 65.8을, 수출단가는 73.4에서 67.9, 수출채산성도 43.1에서 55.7로 각각 떨어졌다.

이와 함께 수출국 경기EBSI 역시 116.2에서 78.5로 떨어졌고, 국제수급상황, 수입규제·통상마찰, 설비가동률, 자금사정 등도 마찬가지로 하락폭이 두드러졌다.

제품별로는 가전제품(41.7) 수출이 둔화될 것으로 예상됐으며, 전기기기(78.9)와 섬유제품(79.5)수출도 부진할 것으로 전망됐다. 여기에는 포항 중심의 철강제품의 경우 96.8에서 91.2로 떨어졌고, 기계류는 117.7에서 보험권 수준인 96.6으로 주저앉았다. 특히 이 기간 지역 주력 수출제품인 휴대폰과 관련 부품 또한 104.2에서 2.9 포인트 하락한 91.3에 그쳐, IT기기 수출이 전반적으로 둔화될 것으로 예상됐다. 이번 조사에서 지역 수출업체들은 원재료 가격상승(37.1%)과 원화환율 변동성확대(33.3%), 수출대상국 경기부진(19.1) 등을 3대 경영여요인으로 꼽았다.

이번 조사는 무협 대경본부가 수출실적 50만 달러 이상인 104개 지역 기업을 대상으로 단기 수출경기전망을 조사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 한편 올 4분기 대구지역 제조업과 건설업 경기도 부진할 것이란 전망이 제기됐다. 대구상공회의소가 최근 4분기 지역 기업경기전망을 조사한 결과, 제조업과 건설업의 기업경기실사지수(BSI) 전망치는 각각 85와 75에 그쳐, 기준치 100을 크게 밑돌았다.

제조업의 경우 업종별로 전기·기계장비(88), 종이·인쇄(82), 섬유·의복(81), 금속·가공(74), 화학·고무(71), 식료품·음료(57) 등이 기준치를 하회했다.

건설업 전망치 역시 3분기(92)보다 17포인트 하락하면서 지난해 2분기(100)이후 6분기 연속 기준치를 밑돌았다.

건설 경기 악화 요인으로는 공사물량 감소(41.9%)와 전반적인 건설 경기 침체(27.0%), 전자재 가격 상승(16.2%), 인력수급·인건비 상승(8.1%), 과당경쟁으로 인한 이익 감소(5.4%) 등이 꼽혔다.

최우현 통계전문기자



한 동 수 청송군수

출생 1949년 청송
 학력 경북개방대 토목학과 학사
 영남대 환경공학과 석사
 영남대 교통공학과 박사
 경력 대구시 지하철건설본부장
 경일대 철도경영학부 겸임교수
 대구시 도시계획위원
 제45대 청송군수
 상훈 국무총리표창, 대통령표창, 홍조근정훈장

‘사과의 고장’ 청송이 살기좋은 명품(名品) 녹색 성장의 ‘웰빙고장’으로 재조명받고 있다. 국내 대표 산악스포츠 메카로 거듭나고 있고, 경북에서 처음으로 슬로시티에 지정되면서 지역 경제가 활기를 띠고 있다. 민선 4기에 이어 지난해 7월 민선 5기 단체장에 취임한 한동수(62) 청송군수는 지역 발전 해법을 ‘열린 행정 구현’에서 찾고 있다. ‘소통’과 ‘화합’이란 대원칙을 통해서다. 한 군수는 지난 10월26일 청송군청에서 가진 본보와의 대담에서 “군민들이 행복한 복지농촌 구현을 위해 전 직원이 한 마음 한 뜻이 돼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대한민국 최고의 복지농촌 청송을 만드는데 헌신하는 ‘참일꾼’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 명품(名品) ‘그린 청송’ 육성에 매진할 터 ”

일문일답

Q 청송군의 자랑거리는?

A 천혜의 자연환경을 갖춘 것은 청송군의 최대 자랑거리입니다. 다른 자치단체에선 좀처럼 찾을 수 없는 청송군의 경쟁력인 셈이지요.

청송군은 그래서 테마가 있는 체류형 관광지 개발과 육성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시작된 '3대문화권 문화·생태관광 기반조성사업'은 분명 크나큰 경제적 파급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이 프로젝트는 큰 줄기로 △생태체험마을 지구 △주산지 에코포토벨리 △주왕산 탐방로드 조성사업에 주안점을 두고 추진됩니다. 생태체험마을은 지역의 산림자원을 활용해 생태·건강·레포츠·문화·휴양을 한꺼번에 즐기고 체험할 수 있는 관광지구로 거듭나게 됩니다. 그리고 주산지 에코포토벨리와 주왕산 탐방로드는 생태휴양공간으로 단장해 관광객들에게 선보일 방침입니다.

Q 산악스포츠 메카 육성 계획은?

A 청송지역 곳곳에선 연중 수시로 산악스포츠대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매년 1월엔 국내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청송주왕산 전국아이스클라이밍선수권대회가 얼음골 빙벽장일원에서 성황리에 개최되고 있습니다.

관광시즌인 5월엔 수달래축제와 더불어 태행산전국산악자전거대회가 열리고, 한여름 더위가 절정에 달할 즈음엔 얼음골 인공폭포를 배경으로 청송주왕산드라이틀링대회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가을엔 황금들녘을 배경으로 방광산전국페러글라이딩대회가 장관을 이루고, 동시에 산악마라톤대회를 개최해 참가자들에게 청송군만의 가을정취를 만끽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1월7일부터 1월9일까지 사흘간 부동면 얼음골 일원에서 열린 아이스클라이밍월드컵에서는 국내·외 아이스클라이밍 마니아들이 대거 청송을 찾아 화제

를 모으기도 했습니다. 아이스클라이밍월드컵이 청송에서 열린 것은 아시아지역에서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 월드컵은 향후 5년간 청송에서 개최하기로 이미 확정된 상태입니다. 군은 현재 산악레포츠와 낙동정맥 트레킹로드 조성사업도 타당성 조사에 착수하는 등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볼 때 청송군은 앞으로 명실상부한 국내 대표 산악스포츠 메카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Q 청송 대표 특산물인 사과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에 대해선?

A 청송은 사과의 본고장으로 유명세를 떨치고 있습니다. 사과 생산에 적합한 천혜의 자연환경을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축적된 재배기술을 바탕으로 최고 품질의 사과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엔 국내 농식품분야 최고 권위 대회인 농식품 파워브랜드 대전에서 대통령상을 거머쥐기도 했습니다. 군은 사과산업 활성화를 위해 현동면 거성리일대에 2만9천㎡ 규모로 청송사과 유통센터(APC)를 건립하는 한편 지난 2008년 12월엔 청송읍 송생리 일원이 청송사과특구로 지정받는 등 일등급 사과 생산에 팔을 걷어붙이고 있습니다.

군은 현재 송생리 일대에 29개 주제로 청송사과 테마파크를 조성하기로 하고,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매년 서울 청계천에서 청송사과 페스티벌을 개최하고 청송사과의 우수성을 알리고 있는 등 브랜드 홍보활동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사업비 35억원을 투입해 현동면 거성리 일대에 사과가공지원센터를 건립하는 한편, 과채주스 공장을 조성해 현재 시험가동 중에 있습니다. 청송사과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한 노력은 이에 그치지 않습니다. 사과유통공사를 지난 8월23일 설립해 생산농가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설립된 사과유통공사는 자본금 27억원 규모로, 이 중 청송군

이 18억원, 사과농가가 나머지 9억원을 출자했으며, 참여 과수 농가는 714가구에 달합니다. 주류업체 (주)배상면주기와 고품격 사과주(酒) 생산을 위해 최근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주류 제조법인 청송양원을 설립해 청송사과주 '아락'도 생산하고 있습니다. 과실주 '아락'은 올해 14만병, 내년엔 20만병으로 생산 규모를 확대해 시장점유율을 지속적으로 끌어올릴 복안입니다.

Q 친환경 농업 육성책이 있다면?

A 청송군은 전체 면적의 82%를 산림이 차지하고 해발고도 또한 250m에 달하는 국내 대표 청정지역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군은 이에 따라 지역 주민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농가를 위한 경쟁력 강화 방안의 하나로 친환경농산물 생산 환경구축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군은 전체 예산의 21%인 447억원을 농업분야 예산으로 편성, 집중 투자하고 있는 등 친환경농산물 생산과 판로지원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전국 자치단체 중 최초로 논·밭 깊이갈이사업 대상지 5천30ha를 지정하고 예산 12억원을 투입한 동시에 광역친환경 농업단지 및 농축산순환자원센터 조성을 통해 친환경 먹을거리 생산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생산된 안전 먹을거리인 로컬푸드 상설판매장을 대도시에 운영하고 있는 등 농산물 판로 개척사업도 적극 펼치고 있습니다. 군은 이

를 통해 향후 5년 내에 농가 소득 1억원이상의 부농(富農) 500가구를 육성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지역 농가에 꿈과 희망을 안겨주는데 최선을 다해 노력할 각오입니다.

Q 관광자원 활성화 방안은?

A 거듭 말하지만 청송군은 산과 물, 숲이 자연 그대로 보존된 우리나라 최고의 청정지역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명산(名山) 주왕산과 사계절 신비로운 자태를 뽐내는 주산지, 그리고 동강에 버금가는 명승지 신성계곡 등 밭길 닿는 곳마다 관광명소로 준비합니다. 아울러 유네스코 지질공원에 지정받을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해 빈틈없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군은 이에 발맞춰 주왕산 입구에 주왕산관광단지를 마련하고, △술누리 느림보 세상 △얼음골 빙벽밸리 △오토캠핑장을 각각 조성하고 있는 등 관광인프라 구축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주왕산 입구에 1천명이상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산림조합중앙연수원을 비롯한 청송군 수석박물관 건립사업을 차질 없이 완성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청송 출신인 김주영 작가의 대표작인 '객주'의 배경지인 진보시장과 연계해 '객주문학테마존'을 조성하고 BY2C 외씨버선길과 생태습지공원 조성 등을 통해 문화·생태 체험형 관광상품 개발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거듭 강조하지



만 청송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최고의 볼거리를 선사할 수 있도록 전 직원 모두가 힘을 합쳐 노력하고 있습니다. 테마가 있는 체류형 관광지를 조성해 지역 경제발전의 원동력으로 삼겠다는 뜻입니다.

Q 주민 복지정책에 대해선?

A 고령화 사회가 최근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을 감안해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에 초점을 맞춘 복지정책 마련에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군은 행복경로당 만들기사업과 노인일자리 창출 확대, 노인의료복지시설 확충 등 지역 어르신들이 안락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노인복지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정을 위한 배려도 아끼지 않고 있는데, 체계적인 지원시스템을 가동하고 있는 등 결혼이주여성인 지역 사회에 제대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장애우 지원 방안으로 읍면 단위로 자활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해 장학기금을 확충하고 있는 등 내실 있는 교육정책도 내놓고 있습니다. 군민이 행복한 살기 좋은 청송을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Q '살기좋은 청송조성' 비전에 대해선?

제46대 청송군수로서 소임을 다하기 위해 저는 지난해

A 7월 민선 5기 출범과 함께 '자연과 함께 미래를 열어가는 청송'을 군정 슬로건으로 정하고, 군정 비전인 '누구나 행복을 느끼는 새시대 창조'를 완성하는데 한 치의 흐트러짐 없이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5대 중점과제별 12대 역점 시책을 차질없이 수행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살기좋은 청송건설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춘 '행복청송' 건설을 위해 최적의 정주기반 조성에 힘을 모으고 있으며, 하수처리장 설치 및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건립,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사업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지역발전 기반 구축과 SOC 확충을 위해 동서6축 고속도로 조기 개통과 남북6축 간선도로 건설 등을 통해 '희망청송' 프로젝트를 완성하는데도 주력하고 있습니다. 살기좋은 청송을 만들어 군민들의 성원에 반드시 보답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군수실 문턱부터 먼저 낮추겠습니다. 열린 군정을 구현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군민소통창구인 '두드림' 제도를 운영하고 군수실을 상시 개방해 민의를 수렴하고 있는 것도 바로 이때 문입니다. 거듭 강조하지만 민선5기 2년차인 올해를 주민들이 감동하는 원년으로 삼고 작은 목소리도 놓치지 않고 크게 듣는 열린 행정 구현에 앞장서 노력하겠습니다.

군민을 위한 '참일꾼'으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대담=조종성 국장
정리=서기대 취재부장



대구·경북 스토리텔링 본고장 '우뚛'

pride Gyeongbuk
 함께떠나요. 멋과 맛이 공존하는 경북으로!
 도전! 스토리탐험대가 함께합니다



풍부한 문화유산과 함께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콘텐츠 제작 인프라가 탄탄한 대구·경북권이 스토리텔링의 본고장으로 떠오르고 있다. 문화유산에 스토리를 입히기 위한 포럼과 축제 등이 잇따라 열리고, 스토리텔링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도 테크노파크 등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에는 스토리텔링을 본격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연구소의 출범과 더불어 대구·경북 지방자치단체들의 스토리텔링 개발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추세이다.

경북도, 원효대사 스토리텔링 '구도의 길' 조성

경상북도는 도내에 흩어져 있는 원효대사 이야기와 유적을 한데 모아 스토리텔링형식으로 소개하고, 원효대사와 함께하는 '구도의 길'을 조성한다고 밝혔다. 원효대사와 관련된 유적지는 분황사, 월정교지, 반룡사 등 18개소가 있으며, 대부분 전통사찰로 유서 깊은 곳이다. 또한 유적지마다 원효대사와 관련되는 재미있는 설화가 전해 내려온다. 원효대사의 설화와 유적을 엮어 홍보하고, 구도의 길 조성, 스토리텔링 책자 발간을 진행할 예정이다. 세부 사업내용을 보면 사업비 2억8천만원으로 원효대사 구도의길 홍보사업, 이야기판 및 안내판 설치, 스토리텔링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세부적인 내용으로는 원효대사와 관련된 설화를 바탕으로 원효대사를 재미있게 알아갈 수 있도록 삽화와 함께 이야기를 구성했으며, 원효대사가 지나온 흔적을 찾아 각 유적지에 원효대사 이야기판을 설치할 계획이다. 또한, 유적지 주변에서 원효대사가 실제 다니던 길을 찾아 자연 그대로 걸을 수 있도록 구도의 길을 제시할 것이다. 그리고, 원효대사 이야기, 구도의 길을 경북도청 관광 홈페이지인 경북 나드리(www.gbtour.net)에 게재하여 모든 이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였다.

울진군 십이령 보부상길 스토리텔링 개발사업 본격 추진

경북 울진군은 파라다이스문화재단과 십이령 보부상길 스토리텔링 개발사업 지원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스토리텔링 개발을 통해 보부상의 애환이 녹아 있는 십이령 보부상길을 재조명하고 이야기 있는 관광코스로 개발하기 위해 추진한다. 십이령 보부상길 스토리텔링 개발사업은 한국의 기념비적인 작품으로 손꼽히는 김주영 작가의 소설객주 10권을 울진의 십이령 보부상길을 바탕으로 집필해 작품을 마무리하는 프로젝트다. 군은 엑스포 공원내에 집필공간을 마련하고 2012년 말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향후 기업, 학교 등과 연계한 보부상 인문학 탐방행사를 정기적으로 열어 유명 소설가, 시인, 화가 등이 참여하는 울진이야기 단행본 발간사업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십이령 보부상길은 옛 보부상들이 흥부장, 울진장, 죽변장에서 해산물을 구입해 봉화, 영주, 안동 등 내륙지방으로 행상을 할 때 다니던 길로 산세가 험하고 구간이 길어 보부상들의 힘든 여정을 느낄 수 있는 도보체험코스이다. 군은 울진의 주요 관광명소와 십이령 보부상길, 금강송 소나무숲 등을 알리기 위해 올해 초 수도권지

역 문화예술인 초청 생태문화관광 팸투어를 시작으로 엄홍길 휴먼재단 초청 금강송숲길 탐방행사, 길 위의 인문학 초청 보부상길 탐방행사 등 다양한 탐방행사를 실시해 오고 있다. 군 관계자는 "십이령 보부상길 스토리텔링 사업을 통해 십이령 보부상길이 이야기 있는 관광코스로 깨끗한 자연환경, 전국 최대의 금강송군락지와 더불어 유명 생태관광코스로 발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고령군 대가야 역사문화 스토리텔링 개발사업

최근 고령군에서는 토기, 철기, 가야금문화를 꽃피운 대가야의 역사·문화자원을 이해하기 쉬운 스토리텔링으로 개발, 대가야 문화를 대내·외적으로 홍보하고 다양한 문화콘텐츠를 개발할 수 있는 드라마, 영화, 애니메이션 등을 제작할 수 있는 기반조성을 마련키로 했다. 스토리텔링의 시대적 배경과 주내용은 서기515년부터 562년까지 47년간 대가야의 변영과 이어진 대가야의 멸망이 있었던 시기로 가야금을 만든 악성 우루의 청소년기에서 생을 마칠 때까지의 파란만장한 인생의 일대기를 소재로 한 내용을 작품화했다. 대가야시대 중 가장 극적인 연대를 소재로 해 제작 중인 것으로 향후 콘텐츠를 대비해 만화형식(샘플북)으로 제작했다.

스토리텔링 활성화를 위한 사례 및 방안

독일 '베르헨 스트라세'는 하나우에서 시작해 브레멘까지 동화와 관련된 도시 600km를 연결한 '스토리 로드'다. 동화가도는 '피리부는 사나이' '브레멘음악대' 등 각 도시를 대표하는 동화를 스토리텔링화해 뮤지컬이나 연극으로 무대에 올리는가 하면, 다양한 캐릭터 상품도 선보이고 있다. 스토리텔링형 관광상품의 성공사례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특히 피리부는 사나이로 유명한 '취의 도시' 하멜른의 경우 1997년 시와 민간사업자가 공동으로 하멜른 관광마케팅 유한회사까지 설립, 인구 5만8천명에 불과한 도시가 연간 420만 관광객을 유치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무엇보다도 뮤지컬 또는 연극무대에 지역주민들이 배우로 참여,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고 있다.

이와 달리 경북지역 지자체는 상생보다는 경쟁관계에 있다고 봐야 한다. 심하게 말하면 '남이 잘 되는 꼴'을 보지 못하는 것이 현주소다. 독일처럼 60개 도시가 스토리텔링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세우고, 상생해 가는 모습을 경북지역에서는 찾기 힘들다. 관광산업에서는 더욱 그렇다. 앞으로 독일의 동화기도처럼 동해안의 스

토리로드가 성공하려면 정확한 공동의 목표를 정해놓고, 경쟁관계가 아닌 상생관계에서 지자체간의 협력이 우선되어야 한다. 동해안을 중심으로 수많은 스토리 자원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지자체간의 노력이 없는 것을 보면 아쉬울 뿐이다. 협조시스템만 갖춘다면 독일 동화기도에 버금가는 동해안 스토리 로드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 따라서 독일 사례처럼 스토리 로드가 성공하려면 초광역권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경북 뿐만 아니라 강원, 경남 등 동해안을 끼고 있는 모든 지자체가 동참해야 한다. 최근 들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는 화랑가도는 그런 맥락에서 출발한 것이다. 화랑가도는 1천500년전 신라시대 화랑들이 심신수양과 호연지기를 기르기 위해 동해안을 걸었던 길을 말한다. 강원도와 경북지역 지자체간에 협조로 이 길을 복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세계적으로 가장 오래된 청소년 국토순례길이 초광역권 사업으로 복원된다는 것에 더욱 의미가 있다. 단일 지자체가 아닌 강원도와 경북도의 지자체가 협력사업으로 진행한다는 것은 반가운 소식이다. 이러한 화랑가도가 스토리 로드로 복원된다면 더욱 의미가 있을 것이다.

이뿐만 아니다. 대경권 광역경제발전위원회에서 강원도에 제안한 낭만가도도 같은 맥락이다. 차를 타고 이동하면서 동해안 전망을 볼 수 있도록 길을 조성하는 것인데, 이러한 사업에도 스토리가 반드시 가미되어야 한다고 본다. 다시한번 강조 하지만 스토리 로드는 단일 지자체로는 불가능하다. 반드시 초광역권사업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스토리텔링 산업은 전문인력이 기반이 되어야 한다. 현장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서울은 전문인력이 많아 구직난이라고 하는데, 경북을 비롯한 지역은 전문인력 수요가 없어 구인난이라고 한다. 따라서 전문인력 양성이 시급하다. 문화해설사가 대표적인 현장의 스토리텔러라고 볼 수 있다. 경북도의 경우 문화해설사가 곳곳에 있을 정도로 수적으로 상당히 많다.

하지만 관광지를 가보면 잘하는 사람만 나온다. 그렇다 보니 재방문했을 때 똑같은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다. 문화해설사들을 위해 스토리를 업그레이드 할 필요가 있는데, 그런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다.

이야기를 업그레이드 해 전달자에게 제공하는 새로운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러한 시스템이 갖춰진다면 자연스럽게 일자리 창출도 가능할 것이다.

정성민 편집위원



글로벌 금융시장 '환율전쟁' 격화

자국 경제 보호 조치..신보호주의 수면위로



유럽발(發) 신용경색이 장기화되자, 세계 곳곳에서 신보호주의 장벽이 수면위로 부상하고 있다. 자국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미국과 중국이 위안화 환율 문제로 대립각을 세우고 있고, 세계 경제를 이끌 다크호스인 브릭스(BRICs)국가들 역시 주요 통화에 대한 자국화폐의 교환 비율을 유리하게 유지하기 위한 외환시장 개입을 강화하고 있다. 바야흐로 세계 금융시장 곳곳에서 '환율전쟁'이 동시다발적으로 불거지고 있는 것이다.

‘신보호주의’ 고개

최근들어 세계 각국에서 ‘환율전쟁’이 또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지난 2008년 불거진 ‘리먼사태’ 후폭풍이 채 가시기전에 전 세계에 또 다시 몰아치고 있는 유럽발(發) 신용경색 우려 속에 자국경제를 지키려는 자구책으로 풀이된다.

이런 현상은 미국과 일본, 이탈리아 등 세계 경제를 움직이는 G7(주요 7개국) 국가들의 신용등급 강등과 그리스 재정위기 고조 등 글로벌 경제 위기 국면이 장기화면서 한층 확산되고 있는 분위기다.

자국 화폐에 대한 교환비율을 유리하게 조정하려는 이 같은 기(氣)싸움은 이미 세계 곳곳에서 광범위하게 일고 있다.

그 중심엔 세계 경제 양대 축인 G2국가인 미국과 중국이 있다. 미국 상원은 최근 위안화 절상압력 조치로 ‘위안화 환율조작 의혹’ 대응 법안을 상정했고, 중국은 즉각 외교부 대변인 성명까지 발표하며 발끈하고 있는 등 미국과 중국 간 ‘환율 갈등’은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형국으로 치닫고 있다.

중국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미 상원은 최근 이 법안을 찬성 63표, 반대 35표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저평가된 위안화 가치를 부당한 보조금 때문으로 간주하고 상거래관세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을 주된 골자로 하고 있다. 여기에다 미국 기업과 노동조합이 외국 정부의 환율조작의혹에 대한 조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아, 무역 마찰국가들의 반발을 예고하고 있다. 신보호주의 기치를 세우는 것은 비단 이들 두 국가만은 아니다.

신흥 경제 강국들도 예외는 아니다.

풍부한 자원과 인력을 바탕으로 세계경제를 주름잡고 있는 인도, 브라질 등 브릭스(BRICS)국가들이 이 경우에 속하는데, 이들 국가들은 최근 주요 통화대비 자국 화폐의 교환비율을 예의주시하며 외환시장에 적극 개입하고 있는 추세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글로벌 금융시장이 요동친 지난 9월말 브라질, 인도 등 신흥경제 강국들이 자국 경제 보호를 위해 ‘환율방어’에 쏟아

부은 돈만 원화로 무려 7조원을 웃도는 것으로 추산된다.

통상 글로벌 신용경색이 확산되면 신흥국들은 곤욕을 치르게 된다. 외화갯간과 자국 통화가치를 함께 돌봐야 하는 모순된 상황에 놓이게 되는데, 통화가치를 지키자니 달러가 빠져나가기 쉽고, 달러를 붙잡고 있자니 통화가치가 급락하는 딜레마에 빠지기 쉬운 이유에서다.

정부 외환시장 적극 개입

한국도 사정은 엇비슷해 보인다. 최근엔 지난 9월 그리스발(發) 재정위기가 이탈리아, 스페인으로 전염될 수 있다는 우려감이 증폭되면서 유럽계 자금이 국내에서 급속도로 빠져나간 경험이 있다.

정부는 당시 원화가치가 급락하자 외환시장에 즉각적으로 개



입, 환율방어에 나서는 등 외환시장 안정 의지를 강력하게 내비친 바 있다. 당시 환율은 달러당 1천200원선에 육박했고, 정부는 외환시장에 35억달러를 풀어 환율을 1천166원까지 끌어내린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한편, 환율 오르내림은 당분간 변동성이 매우 클 것으로 관측된다. 무엇보다 글로벌 신용경색이 좀체 사그라지지 않고 있는 게 가장 큰 약재로 꼽힌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글로벌 금융위기 조짐이 시작된 지난 8월부터 2개월간 외국인 자금 7조원 가량이 해외로 빠져나간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 9월 외국인 주식 투자는 1조3140억원 줄었고, 채권 투자 또한 25억원 감소했다. 이 기간 주식에서는 해외로 빠져나간 유럽계 자금만 9천700억원에 달했고, 순매도액 기준으로 록셈부르크가 6천200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아일랜드 5천억원, 프랑스 3천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한국 경제의 방어막 역할을 하고 있는 무역수지 흑자 규모가 최근 빠른 속도로 줄어들고 있는 것도 향후 환율불안을 가중시킬 약재로 보인다.

지난 8월 경상수지 흑자 규모는 4억달러에 그쳐, 지난 1월 이후 7개월 만에 최저치로 추락했다고 한국은행 측은 밝혔다.

이는 전달인 7월의 37억7천만 달러와 비교해 10분의 1 수준까지 급감한 것이다.

글로벌 신용경색 완화시 환율 안정 기대

환율이 안정을 되찾기 위해서는 글로벌 신용경색이 누그러질 때 비로소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시장상황은 여의치 않아 보인다.

유로존에서 촉발된 글로벌 신용경색이 장기화되고 있는 게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때문에 기축통화인 달러를 매입하기 위한 글로벌 투자기관들의 움직임도 한층 속도를 내고 있다. 유동성 확보를 위해서다. 달러가치가 최근 크게 오른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우리나라도 안전지대는 아닌 것 같다. 경우에 따라서 국내 금융시장이 다시 요동칠 수 있다는 어두운 전망도 속속 나오고 있다.

미국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는 최근 그리스 디폴트가 현실화되고 정부의 시장 개입이 없는 상태에서 외국 자본이 대거 한국을 빠져나가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나타나면 환율이 달러당 1



천400원 이상 치솟을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한 바 있다.

원·달러 환율이 급등할 경우 '한국경제'가 다시 곤경에 빠질 수 있다는 뜻이다. 이 때문에 원화 가치가 급속도로 하락할 경우 '환율방어'를 위해 정부의 고강도 시장개입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다만 외환당국의 지나친 시장개입은 오히려 역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비판 여론도 만만찮게 일고 있다.

'환율방어'를 위한 정부의 과도한 시장개입은 외환시장 안정엔 별다른 도움을 주지 못한 채 자칫 외환보유고만 축내게 될 것이란 비관적 관측이 조심스럽게 흘러나오고 있다.

환율변동 산업계는 업종별 '희비'

그렇다면 적정 수준의 환율 유지는 왜 중요할까. 무엇보다 국가 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통상 원화 가치가 하락하면 수출기업 입장에선 실(失)보다 득(得)이 많다. 환율상승에 따라 환차익이 늘어나는 이유에서다.

해외시장에서 수출 상품의 가격 경쟁력이 높아지고, 이에 따라 수출 기업들의 실적을 끌어올리는데 많은 도움을 주기 때문이다. 최근 유럽 국가들의 잇따른 재정위기로 글로벌 경제위기가 고조되면서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자, 수출 주력산업인 자동차와 전자업종을 중심으로 환율 수혜 전략 확보에 경쟁적으로 나선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이에 반해 수입업체의 경우 원화 가치 하락은 기업 경쟁력을 떨어트리는 약재로 작용하게 되는데, 원·부자재의 수입 원가

를 끌어올려 채산성을 악화시키는 주범이 되는 이유에서다. 이뿐만이 아니다. 원화 가치가 급격하게 떨어지면 수입물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는 등 물가안정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한국은행이 최근 발표한 '수출입물가지수' 자료에 따르면 지난 9월 국내 수입물가는 작년 같은 달에 비해 14%나 치솟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월별 기준으로 올 들어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것이다. 수입물가가 최근들어 이처럼 크게 오른 것은 급격한 환율 상승 요인 때문으로 분석된다. 최근들어 기름값이 많이 오른 것도 같은 이유에서다.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지난 10월11일(오전 10시 기준) 거래 기준으로 전국의 휘발유 소비자가격은 리터당 1천969.13원을 기록해 전날보다 0.23원 올랐다. 이는 지난 9월4일(리터당 1천 933.21원) 이래 37일 연속 오름세를 이어간 것이다.

정유업계 관계자는 “최근들어 기름값이 많이 오른 것은 환율 상승분이 반영된 때문”이라면서 “원화 가치가 절상되지 않은 한 국내 기름 값은 당분간 가격강세 흐름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사정이 이러하자 정부도 환율 오르내림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분위기다. 고강도 외환시장 안정 의지도 거듭 천명하고 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최근 원화 가치가 급격히 하락하자, “외환 보유액 3천억달러는 위기대응에 충분한 규모”라면서 “환율은 시장에서 결정하도록 하는 기초를 유지하되 시장이 급등락하거나 쏠림현상이 나타날 때 완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혀, 환율 급등시 외환시장에 개입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확인한 바 있다.

한편 정부는 이와 별도로 최근 환율이 많이 오른 배경으로 글로벌 신용경색이 가중된 때문으로 파악하고 기준금리 동결카드도 꺼내들고 있다. 한국은행은 지난 10월 기준금리를 3.25%로 유지, 6달 연속 동결했다.

이번 금리 동결은 대외 불안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글로벌 경기둔화에 따라 우리 경제가 수출부진 등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감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서기대 취재부장



개시시점지가 산정 기준

납부의무자가 실제 매입가액을 신고하지 않더라도, 매입가액을 기준으로 개시시점지를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등 관련)

질의요지

납부의무자가 실제 매입가액을 신고하지 않더라도, 부과권자는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실제 매입가액을 기준으로 개시시점지를 산정할 수 있는가?

회답

납부의무자가 실제 매입가액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 부과권자는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더라도, 그 실제의 매입가액을 기준으로 개시시점지를 산정할 수 없다.

이유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개발부담금 부과기준은 부과 종료시점의 부과대상 토지 가액에서 부과개시시점의 부과대상 토지 가액(이하 개시시점지가), 부과기간의 정상지가상승분 및 개발비용을 뺀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개시시점지는 부과개시시점이 속한 연도의 부과대상 토지개발공시지가(부과개시시점 기준 가장 최근 공시지가)에 그 공시지가의 기준일부터 부과개시시점까지 정상지가상승분을 합한 가액이다. 다만, 공공기관이 매입하거나 경매, 입찰, 협의, 수용 등으로 매입한 경우에 대해 그 실제 매입가액이나 취득가액에 그 매입일이나 취득일부터

부과개시시점까지 정상지가상승분을 더하거나 뺀 가액을 개시시점지가로 할 수 있다.

또한 개시시점지에 대해 부분 단서를 적용받으려는 납부의무자는 증명자료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매입가격 증명자료를 제출하려는 납부의무자는 부담금 예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매입가격을 기재한 거래가격신고서에 매입증서 사본을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상기와 같이, 법령에서 개발부담금 부과기준과 그 기준에 따른 자가 산정기준 및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으며, 부과대상 토지를 실제 매입하는 가액이 정상거래가격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에 해당하면 그 실제 매입가액을 기준으로 개시시점지를 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납부의무자로 하여금 부담금 예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매입증서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등 자가 산정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문언상 실제 매입가액을 기준으로 개시시점지를 산정하려면, 납부의무자가 실제 매입가격을 신고해야 한다. 단, 실제 매입가격 신고가 없는 경우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개발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시시점지를 산정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개발부담금 부과기준과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률의 취지에 합당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납부의무자가 실제 매입가액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 부과권자는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더라도 그 실제 매입가액을 기준으로 개시시점지를 산정할 수 없다.

〈자료제공 : 한국경제기획연구원〉

전통과 문화가 살아있는
신비의 왕국 대가야!

고령 ~ 참 좋다!

일찍이 찬란한 대가야 문화를 꽃피웠던 자랑스런 고장으로서는
수많은 유물과 유적이 있는 대가야박물관, 왕릉전시관,
우륵박물관, 대가야역사테마관광지 등이 있습니다.
예술성과 실용성이 뛰어난 토기문화와 갑옷, 투구, 고리칼 등의
철기문화, 가야금을 창제한 악성 우륵 선생의 숨결이 살아 있는 곳입니다.

고령으로 오십시오~~



대가야역사테마관광지

왕릉전시관

대가야박물관





경북농협봉사회 '나눔 경영' 실천 앞장

경북농협이 '나눔경영' 실천에 앞장서고 있다. 지난 2005년 발족한 경북농협봉사회를 통해서다. 10월 현재 경북농협봉사회에는 도내 23개 시·군·지부 농협중앙회 소속 직원 600여명이 회원으로 참가해 봉사활동에 나서고 있다.

농촌과 함께하는 경북농협

봉사회 측은 농촌일손돕기 봉사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농민을 돕고, 살기 좋은 농촌을 만들겠다는 취지에서다.

예컨대 경북농협봉사회는 지난 1월 포항지역에 69년 만에 엄습한 기록적인 폭설로 비닐하우스 2천703동이 부서지고 농작물이 냉해를 입자, 휴일도 반납한 채 피해현장을 찾아제설작업과 쓰러진 비닐하우스를 복구해 지역 사회에 큰 화제를 모았다.

이보다 앞서 작년 9월 강풍을 동반한 제7호 태풍 '곤파스'가 충남 서산 인삼재배시설을 휩쓸고 갔을 땐 피해지역 인삼밭을 찾아그늘막 제거 복구틀, 또 그해 가을엔 감, 사과 등 과실수 수확 일손돕기 봉사활동을 펼쳐 훈훈한 감동을 전하기도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봉사회 측은 농번기 수시로 도내 영농현장을 찾아 일손돕기 봉사활동을 펼치며 농민들 곁으로 다가서는 농협을 만드는데 매진하고 있다. 봉사회 측은 "농촌일손돕기 지원 활동은 단순한 일의 연장이 아니라 농협의 설립 취지를 살려 농촌과 농업인들에게 고마움을 갚을 수 있는 기회로 삼고 있다"고 강조했다.

어려운 이웃돕기 앞장

농촌일손돕기 못지 않게 의료지원사업도 현지 농업인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경북농협은 지난 2008년부터 NH보험봉사

와 함께 도내 농촌지역 구석구석을 누비며 무료 한방진료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이 의료사업에서는 개인별 진료결과에 따라 침과 뜸, 부항, 물리치료를 받을 수 있고, 구체적인 질병이 발견될 경우엔 한약처방도 해주고 있다. 이 의료사업을 통해 매년 도내 10여개 시·군에서 1천명 이상의 농업인이 수혜를 입고 있다고 봉사회 측은 전했다. 지난 8월말 기준, 1만6천800여명이 의료 혜택을 받은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봉사회 측은 덧붙였다. 경북농협봉사회는 아울러 매달 회원들의 급여에서 일정액을 모금해 소년소녀가장과 홀몸 어르신, 중증장애우, 아동시설 등 도내 사회소의계층과 사회복지시설에 이웃사랑의 손길도 보내고 있다.

다문화가정 모국방문 지원사업도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 경북농협 측은 농협문화복지재단과 손잡고 지난 2007년부터 다문화가족 모국방문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결혼이민여성들이 우리 농촌의 당당한 구성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다.

이를 통해 지난해까지 97가정 387명이 모국방문에 올랐고, 경북농협 측은 올 연말까지 추가로 35가정, 144명을 대상으로 모국방문 지원사업을 전개할 계획이다. 김유태 경북농협본부장은 "농민이 행복하고, 우리 농촌이 잘 살 수 있도록 힘을 보태는 '경북농협'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서기대 취재부장

99칸 청송 심씨 송소고택, 체험형 관광 프로그램 '다채'

조선시대 상류사회 가옥 구조 원형 그대로 보존

대자연이 살아숨쉬는 '청정고장' 청송을 찾았다면 국가 중요 민속자료 250호인 '송소고택'을 빠트리면 안 될 듯 하다. 조선시대 상류사회의 전통 가옥양식을 원형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등 관광명소로 유명세를 타고 있는 이유에서다. <편집자 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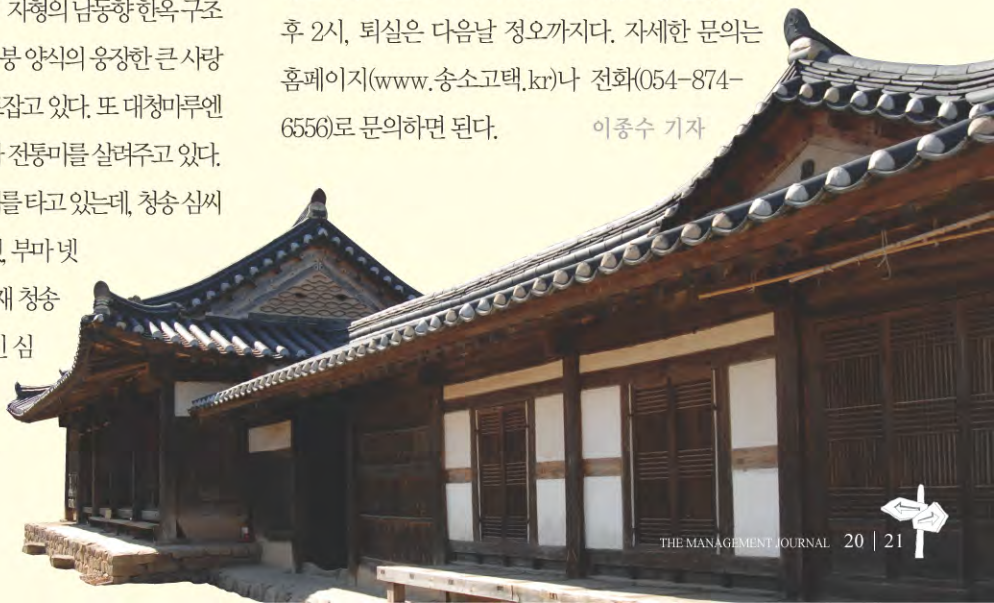


문화재적 가치 우수

송소고택은 보존가치가 매우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 고택은 조선 영조때 만석의 부를 누린 심처대의 7대손인 송소(松濤) 심호택이 호박 골에서 조상의 본거지인 덕천리로 이거하면서 1880년께 지은 것은 전해지고 있다. 국내에서 드물게 99칸 규모로 조성된 송소고택은 조선시대 상류가옥의 특징을 원형 그대로 보존하고 있어 학계와 관광업계에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안채는 'ㄷ' 자형의 남동향 한옥 구조로, 대문채와 정면 5칸, 측면 2칸의 팔작지붕 양식의 웅장한 큰 사랑채, 별당 2채 등이 관광객들의 시선을 사로잡고 있다. 또 대청마루엔 세살문 위에 빗살무늬의 교창을 함께 달아 전통미를 살려주고 있다. 송소고택은 '덕천동 심부자택'으로 유명세를 타고 있는데, 청송 심씨는 조선시대 500년동안 정승 열셋, 왕비 넷, 부마 넷을 배출한 명문 가문으로 이름이 높다. 현재 청송에는 고려시대 때 위위사승을 지낸 시조인 심홍부의 증손인 청송 심씨 심원부의 후손이 100여가구 모여 집성촌을 이루고 있다.

체험프로그램 '다채'

송소고택은 고택 체험관광 상품으로 큰 인기를 얻고 있다. 볼거리와 체험프로그램이 풍성한 때문이다. 이 고택은 지난 2002년부터 고택 체험시설로 개방돼 운영되고 있으며, 정기 음악회와 고택체험행사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마련해 관광객들의 발길이 분주히 이어지고 있다. 한국관광공사가 국내 관광산업 발전에 기여한 관광지나 개인 또는 단체 발굴을 위해 제정한 '2011년 한국관광의 별' 에도 선정되는 영광을 안았다. 송소고택은 현재 관광객들에게 99칸 중 13칸을 숙박시설로 제공하고 있다. 유료로 운영되고 있는 고택 숙박체험은 작은방은 2명, 큰방은 4명 기준으로 각각 제공되고 있으며, 입실은 오후 2시, 퇴실은 다음날 정오까지다. 자세한 문의는 홈페이지(www.songsogotak.kr)나 전화(054-874-6556)로 문의하면 된다. 이종수 기자



청송, 글로벌 슬로시티 부푼 꿈

국내 첫 산촌형 슬로시티 조성...지역 발전 밑거름 기대

‘청정고장’ 경북 청송군이 전세계가 주목하는 글로벌 슬로시티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국립공원 주왕산과 비경(秘境) 주산지, 99간짜리 양반가옥 송소고택 등 천혜의 자연환경과 전통문화를 두루 갖춘 덕분이다.

청송군은 지난 6월25일 폴란드 리즈바르크 바라민스키에서 열린 국제슬로시티시장총회에서 국제슬로시티로 지정됐다. 경북지역에서 슬로시티로 지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자연과 어울려진 느린 마을 만들기 운동

슬로시티(Slow City)는 지난 1999년 이탈리아 작은 마을에서 시작된 민간인 주도의 느린 마을 만들기 운동이다. 공식명칭은 치타슬로(Cittaslow).

지역의 고유한 자연환경과 전통문화를 지키면서 지역민이 주체가 되는 살기좋은 마을을 만들자는 취지로 출발했다.

슬로시티로 지정받기 위해선 까다로운 심사조건을 통과해야한다. 슬로시티 국제연맹은 이를 위해 신청 지역을 직접 실사해 엄격한 잣대로 평가하고 있다. 전체 24개 항목을 심사하는데, 이중 핵심 5개 항목을 중점 검토하고 있다. 우선 해당 지역의 인구는 5만명 이하여야하고, 자연 생태계 또한 철저히 보호돼 있어야 한다. 이와 함께 해당 지역 주민들은 전통 문화에 대한 자긍심을 가져야하고, 유기농법 방식의 특산물도 생산해야한다. 대형마트나 패스트푸드점에 아예 없어야한다. 슬로시티로 지정되면 5년마다 재심사를 받는다. 현재 이탈리아와 영국, 독일, 스페인 등 세계 25개국에서 147개 지역이 슬로시티에 지정돼, 세계적인 관광명소로 주목받고 있다. 아시아에선 우리나라가 유일한 슬로시티 지정국가다. 전남 담양, 신안, 완도, 장흥과 경남

하동, 충남 예산, 전북 전주, 경기 남양주 등이 슬로시티에 지정돼 있다. 청송군이 이번에 슬로시티에 지정된 것은 국내에서 9번째다.

대자연 때문지 않은 청정 고장

청송에는 꿀떡있는 공장이 단 한 개도 없다. 다시 말해 생태환경이 잘 보존된 대한민국 대표 청정지역이란 뜻이다.

국내 3대 암산 주왕산국립공원과 사진 작가들로부터 명성높은 주산지 등 천혜의 자연환경을 두루 갖추고 있다. 밤하늘 은하수와 별을 또렷이 볼 수 있고, 주요 하천엔 동사리 등 민물고기와 다슬기가 서식할 정도 맑은 수질을 자랑한다. 청송은 이와 함께 유서깊은 전통·문화·역사의 고장이다. 조선시대 양반가의 가옥 구조를 엿볼 수 있는 99간짜리 송소고택을 비롯해 장인의 혼(魂)이 깃든 청송한지, 백자, 옹기 등 유·무형 문화재가 곳곳에 즐비하다. 관광객들의 발길도 연중 북적이고 있다. 때 묻지않은 대자연과 전통의 맥을 잇는 유·무형 문화유산을 체험하기 위해서다. 예컨대 지난 6월18일부터 이틀간 한국관광공사 이참 사장과 주한대사, 100여명의 한국관광서포터즈단도 청송을 방문해 슬로시티 투어에 나선 바 있다. 이들은 주왕산국립공원과 주산지 등



주요 관광 명소를 투어하고, 저녁에는 송소고택에서 열린 고택 음악회에 참가하는 등 청송군만의 차별화된 ‘느림보 미학’을 만끽했다.

이참 사장은 이 자리에서 “청송은 세계인들에게 영감을 줄 수 있는 문화관광자원을 많이 보유하고 있다”면서 “한국 전통의 선비정신과 문화적 감수성, 그리고 전체의 자연환경을 두루 갖추고 있는 등 도시인들이 재충전하기에 가장 적합한 슬로시티 본고장”이라고 치켜세웠다.

국내 최초의 산촌형 슬로시티 조성 기대

청송군은 차별화된 슬로시티 조성을 위해 전 직원이 힘을 합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가장 한국적인 멋, 그리고 전통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국내 대표 슬로시티로 거듭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지난 9월29일 군청 대회의실에서는 한국슬로시티본부와 국제슬로시티연맹이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한 지역·글로벌 커뮤니티 만들기 국제 세미나가 열려, 학계와 관광업계에 비상한 관심을 모으기도 했다. ‘지역민이 이끄는 녹색 커뮤니티 운동 사례’란 주제로 열린 이번 세미나에서는 조르조 올리베티 슬로시티 국제연맹 사무총장을 비롯해 이탈리아, 노



르웨이, 핀란드 등 각국 대표와 손대현 한국슬로시티 이사장 등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해 각국의 슬로시티 공동체 운동 사례를 소개하는 등 청송군이 지향해야 할 슬로시티 육성 방향을 제시했다. 청송군은 이를 토대로 한국 최초의 산촌형 슬로시티를 조성해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등 경제 활성화를 통해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힘을 보탠다는 방침이다.

한동수 청송군수는 “(이번 슬로시티 지정은) 지역의 관광산업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국제슬로시티연맹을 비롯한 슬로시티 지정 지자체와의 정기교류 등을 통해 청송군만의 차별화된 슬로시티를 조성해 지역 발전의 밑거름으로 삼을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홍순대 정책전문기자



수달래·사과 축제 전국적인 명성

청송군은 매년 4월말에서 5월초순경에 주왕산 4대 명물 중 하나인 수달래를 테마로 한 축제를 선보이고 있다. 축제 이름은 '주왕산 수달래축제'. 또 10월 하순엔 청송 대표 특산물인 사과를 주제로 한 '청송사과축제'를 열어 전국 각지에서 관광객들이 몰려들고 있다.

주왕산 수달래축제

국립공원 주왕산에 수달래가 만발하는 매년 봄, 주왕산 일원에서는 수달래축제가 장관을 이룬다. 축제에선 주왕산을 찾는 관광객들의 안전과 주왕의 낚을 기리는 제례를 올리고, 수달래 꽃잎띄우기, 산악인 한미당 잔치 등 다채로운 행사를 곁들인다. 이 축제는 역사가 매우 깊다. 이미 올해로 26돌을 맞았다. 지난 5월7일부터 8일까지 이틀간 주왕산국립공원 일원에서 열린 올 축제에서는 주왕산 기념등반 등 다채로운 체험프로그램을 마련해 관광객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청송지역 농·특산물을 전시, 판매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힘을 보탰다. 청송군 관계자는 "주왕산에 만발한 수달래를 소재로 지역의 이미지를 강화하고, 아울러 관광객 유치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청송사과축제



매년 결실의 계절 가을엔 사과축제가 관광객을 맞고 있다. 청송의 자랑거리인 사과를 아이টে으로 한 '사과축제 엔 대구·경북을 넘어 전국 각지에서 관광객들이 구름떼처럼 몰려들고 있다. 지난 2004년부터 시작된 청송사과축제는 가을 끝자락으로 접어드는 매년 10월 말께 열리고 있다. 이 축제는 이미 청송군 대표 축제로 자리매김했다는 평을 얻고 있다. '사과! 가을 손짓'이란 슬로건으로 진행된 올 축제는 지난 10월22일부터 30일까지 9일간 청송사과공원 일원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사과왕선발대회, 사과

수출심포지엄, 남사당놀이예 공연 등 풍성한 볼거리를 선보여 방문객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다. 청송군은 아울러 사과판매장을 운영하고, 사과요리경연대회, 향토음식발굴·육성경진대회 등 다양한 부대행사를 곁들여 관광객들의 발길을 사로잡았다.

서기대 취재부장





청송사과

청송사과는 대한민국 대표 사과로 통한다. 그 맛이 매우 뛰어난 이유에서다. 일교차가 커 육질이 단단하고 다른 지역 사과에 비해 당도가 높아 일명 '꿀사과'란 애칭을 얻고 있다. 평균당도는 16도BX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단연 전국 으뜸이다. 청송사과 맛이 이처럼 뛰어난 것은 사과재배에 적합한 천혜의 자연환경을 갖춘 덕분이다. 청송지역은 평균 해발 250m 이상, 연평균 기온이 12.6°C에 달하고, 사과생육기간 중 일교차 또한 13.4°C를 유지해 육질이 치밀할 뿐 아니라 사과 색내기에 적합한 기후적 특성을 지니고 있다.

여기에서 사과생육기간인 4~11월동안 비가 적게 오고 일조시간 또한 1천520시간에 달해 높은 당도를 자랑한다. 사과가 자라는데 가장 이상적인 자연환경을 갖추고 있다는 얘기다. 청송지역에 사과가 처음으로 재배된 것은 지난 1924년으로 거슬러올라간다.

당시 농촌운동가였던 박치환 선생이 현서면 덕계리에 사과 묘목을 보급한 것이 시발점이 됐다. 지난 1994년 12월1일 상표등록(등록번호 제303150호)을 획득하는 등 브랜드화 사업도 최근들어 속도를 내고 있다. 한국농업경영인연합회가 주최하고, 농림수산식품부가 후원하는 제 13·14회 전국 으뜸농산물 품평회에서 2년 연속으로 대상을 수상하는 등 최고의 맛과 품질을 갖췄다는 찬사를 받고 있다.

청송사과·옹기·한지 '원더풀'

청송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맛있는 이른바 '꿀사과' 생산지로 유명하다. 청송은 또한 전통의 맥을 잇고 있는 한지, 옹기 장인(匠人)들도 유난히 많다.



청송 옹기·한지

전통방식 그대로 전해지고 있는 옹기와 한지도 청송지역을 대표하는 공예품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 중 청송옹기의 전통은 경북도 무형문화재 제25호인 옹기장 이무남 선생이 맥을 잇고 있다. 청송옹기가 유명한 데는 옹기제작에 적합한 주원료인 흙에 있다. 여기에서 흙고르기, 밟기, 두드리기 등 모든 제작과정을 전통 수작업으로 고집하고 있는 장인정신에서 찾을 수 있다. 이무남 선생은 현재 진보면 진안리에서 옹기를 만들고 있다. 이곳에 가면 옹기 가마터뿐만 아니라 제작과정을 직접 경험할 수 있다. 전통방식 그대로 재현되고 있는 한지도 청송옹기 못지않게 유명세를 타고 있다. 파천면 송강리에서 6대째 전통한지 맥을 잇고 있는 한지장 이자성 선생의 공로가 크다. 경북 무형문화재 제23-가호에 지정된 이자성 선생은 전통 한지 달인으로 전국적인 명성을 얻고 있다. 그는 현재 전통 한지 제작에 애쓰고 있으며, '청송한지' 제작기법을 후세에 전수하는데 힘을 쏟고 있다.

이종수 기자

대구·경북 행정통합 요원한가



대구시와 경북도의 행정 통합문제는 오랫동안 지역 사회에 커다란 화두(話頭)를 던지고 있다.

정치·경제·행정할 것이 수도권 중심인 대한민국의 힘의 논리 구조 아래에서 '통합'만이 변방도시로 밀려난 대구·경북의 살길임을 명심해야한다. 대구와 경북이 하나로 뭉쳐 힘을 키워하는 것은 분명한 시대적 과업(課業)이기도 하다.

'통합'만이 살길이다

대구와 경북은 원래 한 뿌리에서 출발했다.

한 지붕 한 가족으로 살던 것이 지난 1981년 대구와 경북이 분리되면서 30년째 두 집으로 나뉘져 각자 딴 살림을 살고 있다.

이래선 안 된다는 자성(自省)의 목소리도 몇 년전부터 일고 있다. 대구와 경북을 합치자는 움직임은 애초 경제분야 통합에서 시작됐다.

지난 2006년 당시 단체장이었던 조해영 전 대구시장과 이의근 전 경북도지사가 경제통합 양해각서를 전격 체결하면서 급물살을 타는 듯 했다.

그러나 공감대 형성 단계에서 그치고 말았다. 지금까지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지금 당장 대구·경북이 합쳐도 비대해진 수도권, 경제파이를 넓히고 있는 충청권, 동남권 맹주를 자처하는 부·울·경권(부산·울산·경남)에 맞서 힘겨운 싸움이 예상된다. 이 점을 잊어서 안 된다. 거둬 강조하지만 대구와 경북이 지금과 같이 각자 다른

길로 가서는 지역의 미래는 분명 없다.

대구·경북의 지도자들과 전문가들이 행정통합을 위한 로드맵을 제시하고 강력한 추진체계를 구축해야할 것이다.

상호보완, 협력 대원칙 통해 행정통합 일구자

지난 7월1일자로 통합 1년을 맞은 마산, 창원, 진해의 사례는 좋은 본보기가 된다.

통합후 3개 도시 중 낙후지역은 도시 재생지역으로 지정돼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고, 마산 자유무역지역 확대, 프로야구단 'NC 다이노스' 유치 등 많은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다.

글로벌 사회도 광역화·통합 물결은 시대적 패러다임의 한 물결이다. 일본 중부지방의 나고야권은 아이치현(愛知縣)의 현청 소재지가 있는 나고야를 중심으로 기후현과 미에현, 도요타시가 'GNI경제권'을 형성해 경제통합의 새 모델을 국제사회에 던져주고 있다.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는 G2국인 중국도 도시간 광역화(Mega City Regions)사업은 거침없이 확산되고 있다. 이미 수도권 베이징과 텐진, 허베이성은 각각 도시형 첨단산업과 비즈니스, 첨단제조업, 지원산업 등으로 역할 분담을 통해 단일 경제권을 형성하고 적잖은 시너지 효과를 거두고 있다. 두 지역의 성공 사례는 분명 대구와 경북에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대구·경북의 행정통합은 시대적 과제다. 소모적 정쟁과 경쟁은 이제 그만 끝냈으면 한다. 통합과정의 헤게모니 싸움과 행정통합이후 있게 될 권력자들간의 자리다툼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높다. 상호보완과 협력관계라는 대원칙을 통해 '행정통합'에 속도를 내었으면 한다. 지방이 잘사는 대한민국, 국가 균형 발전의 첫걸음을 대구시와 경북도는 '행정통합'에서 첫 단추를 꿴었으면 한다.

Travel Sketch

추억이 머무르는 곳



국립공원 주왕산(周王山)

곱디고운 단풍잎으로 옷을 갈아입은 천하의 명산(名山) 주왕산.
매년 이맘때면 국내 최대 바위산인 주왕산 곳곳에는 늦가을 정취를 만끽하려는 행락객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다.

※자료출처 : 청송군

3분기 해외주식펀드 수익률 곤두박질

글로벌 신용경색 고조 속 낙폭 확대...투자자들 울상

글로벌 신용 경색 우려감 고조 속에 지난 3분기(7~9월) 해외주식펀드 수익률이 곤두박질친 것으로 나타났다. 펀드평가사 제로인이 최근 '3분기 해외주식펀드 수익률'을 조사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 국제 신용평가사인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가 미국의 신용등급을 하향하면서 금융시장 불안감이 고조된데다 앞친데 덮친 격으로 그리스 채무불이행 우려감 또한 높아지면서 낙폭을 키운 것으로 풀이된다.

신흥국서 자본 이탈 급증

지난 10월28일 제로인에 따르면 지난 3분기 해외주식펀드 수익률은 -21.34%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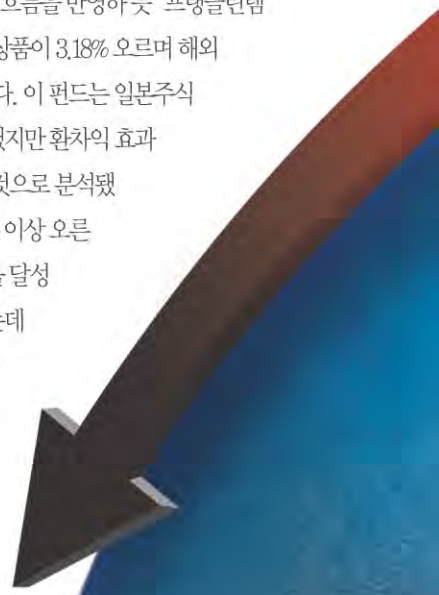
이 기간 글로벌 유동성은 안전자산 선호도 현상이 강화되면서 신흥국에서 투자 자본이 급속도로 이탈하는 모습을 보였다.

가장 큰 악재는 유로존의 위험이 글로벌 신용경색을 가중시킨 데 있다. 이 때문에 낙폭은 선진국에 비해 신흥국 관련 펀드가 더욱 컸다. 실제로 3분기 신흥국주식펀드는 -20.04% 폭락한데 반해 선진국 비중이 높은 글로벌 주식펀드는 상대적으로 선방한 -14.50%에 그쳤다. 지역별로는 북미주식펀드가 -13.47% 수익률을 기록했고, 유럽주식펀드도 -15.56%로 떨어졌다. 반면 일본주식펀드는 환율 효과에 힘입어 하락률이 -8.90%에 그쳐, 해외주식펀드 가운데 가장 양호한 흐름을 이어갔다. 같은기간 주요 신흥국 투자펀드 중에서는 인도주식펀드가 -10.92%를 기록, 하락폭이 상대적으로 적었다. 이에 반해 중국과 브라질, 러시아주식펀드는 모두 -20% 이상 폭락 흐름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러시아주식펀드 수익률이 -28.93%로 하락폭이 가장 컸으며, 이어 홍콩증시하락 여파로 중국주식펀드가 -24.45%, 브라질 주식펀드도 -20.71%를 각각 기록했다. 섹터별로 살펴보면 기초소재섹터펀드는 원자재가격 하락에 따라 -21.10%로 주저앉았고, 유럽 은행 부실에 대한 공포로 금융섹터 펀드 역시 -18.02%까지 떨어지는 등 상대적으로 낙폭이 컸다. 이 기간 해외주식에 대한 투자비중이 낮은 해외주식혼합형펀

드와 해외채권혼합형펀드는 각각 -14.50%, -6.23%를 기록했고, 해외부동산형도 -5.31%로 하락했다. 같은 기간 해외채권형은 -3.89%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신흥국채권에 투자하는 펀드의 수익률이 저조했는데, 남미신흥국채권펀드가 -11.15%를 기록했으며, 신흥국채권펀드 또한 -5.62% 기량 조정을 받았다.

폭락 속 환헤지 따라선 희비 교차

이 기간 순자산액 100억원 이상, 운영기간 3개월 이상인 275개 해외주식펀드 중 고작 2개 펀드만이 플러스 수익률을 보인 것으로 집계됐다. 환율이 요동친 가운데 환헤지를 하지 않은 펀드의 성과가 단연 돋보였다. 이 기간 원화가치는 달러대비 10.63%, 엔화대비 16.07%, 위안화 대비 11.74% 각각 폭락하는 등 주요국 통화와 비교해 모두 약세를 보였다. 이런 시장 흐름을 반영하듯 '프랭클린템플턴재팬플러스자(주식)Class A' 상품이 3.18% 오르며 해외주식펀드 중 수익률 1위를 기록했다. 이 펀드는 일본주식투자에서 -9% 이상 손실을 기록했지만 환차익 효과에 따라 플러스 수익률을 유지한 것으로 분석됐다. 원-엔 환율이 최근 한달간 10% 이상 오른데 힘입어 이 기간 8.38% 수익률을 달성하는 등 수익률 플러스를 유지하는데 도움이 된 셈이다. 같은 기간 금관련 기업에 투자하는 '신한BNPP 골드1(주식)(종류A)' 펀드 또



한 상승률 3.13%를 기록, 수익률이 두 번째로 높았다. 반면 홍콩비중이 높은 중국주식펀드는 대부분 하위권에 그쳐, 대조를 보였다. 실제로 3분기 성과 하위 펀드 10개 중 -31.24%를 기록한 'JP모간 러시아지(주식)A' 펀드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펀드는 중국주식펀드로 나타났다. 특히 항셱지 지수의 1.5배 수익률을 추종하는 '한화차이나피 스피드업1.5배재주식-펀드 종류A' 펀드의 경우 중국증시 하락 여파로 하락률 -41.72%까지 떨어졌다. 또한 이 기간 홍콩에 상장된 사회기반시설과 관련된 업종에 투자하는 '미래에셋차이나인프라섹터자1(주식)종류A' 역시 하락률 -35.41%를 기록, 낙폭이 확대됐다.

제로인 관계자는 "해외펀드 대부분이 3분기 내내 낙폭이 확대되는 모습을 보였다"면서 "특히 안전자산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신중국 관련 펀드 수익률 하락폭이 선진국에 비해 두드러진 흐름을 나타냈다"고 밝혔다.

이광희 금융전문기자



유통가 '미니상품' 인기

핵가족화 영향 1~3인 가구 증가 ... 식품·가전·IT 등 제품 영역 다양



▶ '미니 상품' 열풍이 유통가에 거세게 몰아치고 있다. 핵가족화 영향에 따라 우리 사회에 단출하게 생활하는 싱글족이나 2~3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부터다. 때를 맞춰 유통업계에서는 소포장, 소용량 제품을 강화하며 '미니 마케팅' 경쟁에 열을 올리고 있다.

'소용량 먹거리 제품' 속속 등장

미니 상품의 인기는 지역 유통가에서도 예외는 아니다. 그 중심엔 식품관련 제품이 자리잡고 있다.

최근 혼자사는 싱글족이나 2~3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지역 유통시장 식품코너에서는 기존의 야채 위주로 이뤄졌던 소포장 개별 포장상품을 청과물과 식품 기반 공산품에 이르기까지 취급 제품을 확대하고 있는 추세다. 이런 트렌드를 반영하듯 지역 유통가에서는 야채, 청과, 주류 등 식품 기반의 다양한 미니 상품이 고객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미니상품이 대접받는 데는 고객들의 '알뜰소비'도 한 몫하고 있다. 소포장의 미니 상품을 장만해 필요한 만큼 사용하는 것이 대용량 제품을 구입하는 것보다 훨씬 경제적인 이유에서다. 휴대가 간편한 소용량 페트 음료, 2~4개입의 쿠키, 65g짜리 소용량 컵라면, 소포장 김치 등 적잖은 미니 먹거리 제품이 이미 대중화에 성공한 것으로 시장에서는 분석하고 있다. 이런 바람은 주류시장에서도 확산되고 있다.

실제로 웰빙문화 확산 속에 와인제품을 중심으로 미니 상품이 절찬리에 판매되고 있다. 대구백화점에 따르면 통상 와인은 750ml 짜리가 주를 이루고 있는데, 최근에는 용량이 절반밖에 되지 않는 375ml짜리 소



용량 와인 매출이 연 평균 20% 이상씩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여기에도 주류 제품의 소형화 바람은 최근 맥주제품에까지 몰아치고 있다.

국내 대표 맥주 브랜드인 하이트맥주에서는 주력제품인 355ml짜리 캔맥주 뿐만 아니라 250ml 용량의 '미니 맥주'를 선보여 여성고객 등을 중심으로 큰 인기를 얻고 있다. 두터운 마니아층을 확보하고 있다고 하이트맥주 측은 귀띔했다. 소용량 제품으로 출시돼 가격 메리트가 뛰어난 덕분이다. 사이즈 또한 양증맞을 정도로 작아 시각적 효과도 장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주류 시장의 미니화 열풍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있다. 전통주나 양주, 소주시장에서도 정품 용량의 3분의 1 크기나 10분의 1 수준인 소용량 미니어처 제품이 큰 사랑을 얻고 있다.

주방용품도 '미니제품' 대세

주방기기 제품도 '미니화 바람'이 불고 있다. 지역 유통가에서는 싱글족을 위한 미니 주방용품이 속속 출시되고 있다. 쌀과 물을 넣고 전자레인지로 15분만 가열하면 밥을 지을 수 있는 전자레인지용 밥솥, 팬케이크와 달걀프라이를 손쉽게 조리할 수 있는 미니 프라이팬, 크기가 작아 자투리 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생수기, 1인용 미니 달걀찜기 등이 이 경우에 속한다. 특히 최근들어선 컴팩트한 사이즈와 실용적인 기능을 갖춘 미니 전기밥솥이 20~30대 젊은층 소비자들 사이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예컨대 '쿠쿠'에서는 실속형 '3인용 전기밥솥' (모델명 HQXT0310FR)을 주력 제품으로 선보여 시장점유율을 높이고 있다. 이 제품은 '쿠쿠'에서 세계 최초로 선보인 '3인용 IH 전기압력 밥솥'으로 제작돼 시판되고 있는 게 특징이다. 인기의 비결은 소용량의 특징을 살린 깔끔한 디자인을 강화해 주방의 분위기를 살려주고, 군더더기 없는 사이즈로 좁은 공간에서도 편리하게 밥을 지을 수 있도록 고안된 점에 있다. 여기에도 쾌속취사 기능뿐만 아니라 내솥의 경우 내구성이 강한 티탄 소재를 적용해 긁힘이 없도록 했고, 최고

급 압력전용 코팅인 엑스월사인 코팅기술을 적용한 것도 자랑거리다.

가전·IT기기도 미니화 열풍

가전·IT제품도 마찬가지다. 노트북 시장에선 미니컴퓨터인 태플릿PC 제품이 매출효자 상품으로 떠오르고 있다. 인터넷과 문서작업 등 PC의 기본 기능을 수행할 수 있고, 무게와 크기를 줄여 이동성을 강화한 덕분이다. 삼성전자가 출시한 '갤럭시탭 10.1'은 구글의 최신 태블릿 플랫폼인 허니콤 3.1을 탑재했을 뿐 아니라 10.1인치 크기의 큰 화면을 적용해 마니아층이 두텁다. WXGA(1280×800) 해상도를 적용해 선명한 화질도 자랑한다.

이 태플릿PC는 연필로도 가려진다는 8.6mm의 두께와 570g(WiFi 모델 기준)의 무게를 실현해 시판 중인 태플릿PC 가운데 가장 휴대성이 뛰어나다는 호평도 함께 얻고 있다.

이뿐 아니라 세탁기시장에서도 소형화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다. 삼성전자의 '아가사랑' 세탁기는 용량 3kg 규모의 소형세탁기로, 무엇보다 적은 양의 빨래를 하는데 효과적인 제품으로 시판되고 있다. 일반세탁과 탈수, 삶음기능 등 꼭 필요한 기능만 갖춰, 아기 속옷 빨래 등이 잦은 30대 주부들 사이에서 실용적 아이템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이 제품은 과거 영·유아 자녀가 있는 30대 초반 가정을 타깃으로 삼았지만 최근에는 혼자사는 싱글족이나 삶음기능을 선호하는 실버세대에 이르기까지 구매 계층이 더욱 다양화되고 있다고 유통업계 측은 전했다.

대백프라자점 식품팀 김재철 직원은 "미니제품은 이미 식품 뿐만 아니라 생활 및 가전용품에 이르기까지 영역이 갈수록 다양화되고 있는 추세"라면서 "핵가족화에 따라 1~3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시장규모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 등 지역 유통가에 서 매출효자상품으로 부각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한나 유통전문기자

뿌리산업의 재조명



김중기

중소기업진흥공단
대구경북지역본부 산업팀장

금형, 주조, 소성가공, 용접, 열처리, 표면처리 등 이런 업종은 국가경쟁력을 유지하고 산업의 기반이 되는 기초산업이라 해서 뿌리산업으로 불린다. IT나 첨단산업에 가려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는 받지 못하지만, 뿌리산업 없이 국가경제발전은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다.

지난 2010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자동차 생산대수는 약 680만대로 6년 연속 세계 5위를 기록했다.

최근에는 세계시장 점유율이 더욱 증가 추세에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며, 2012년에는 생산대수가 국내 500만대, 해외 210만대 등 총 710만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 같은 수치를 보면서 글로벌 메이커로 발돋움한 대기업만 추켜세울 것인가? 자동차 한대당 뿌리산업비중은 중량기준으로 86%, 이산화탄소 배출기준으로 28%를 각각 점유할 정도로 뿌리산업 없이 자동차산업은 존재하지 못한다.

특히 국내 자동차산업의 오늘의 성과가 있기까지는 금형, 주조, 소성가공, 용접, 열처리, 표면처리 등의 분야에서 높은 기술력을 갖춘 뿌리산업의 뒷받침 덕이 매우 컸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비단 자동차산업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조선산업은 물론이고 IT분야 수출주력제품의 품질 및 경쟁력을 결정짓는 것도 뿌리산업이다. 이는 원료를 소재로, 소재를 부품으로 가공하는 공정산업이기 때문이다.

완제품이 아니기에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제품 내에 숨은 기술로 체화되어 국내 제조업의 글로벌 경쟁력의 근간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제조업의 근간을 이루는 뿌리산업이 3D산업의 대명사로 불리며 환영받지 못하는 산업으로 인식되고 있는 점이 있다. 환경오염, 열악한 근무여건 등의 이유로 3D업

종이란 인식이 강해 생산현장에서 초급 기능인력의 신규취업이 감소하고 있는 등 점차 고령화 추세를 보이며 기술혁신 인재가 매우 부족한 형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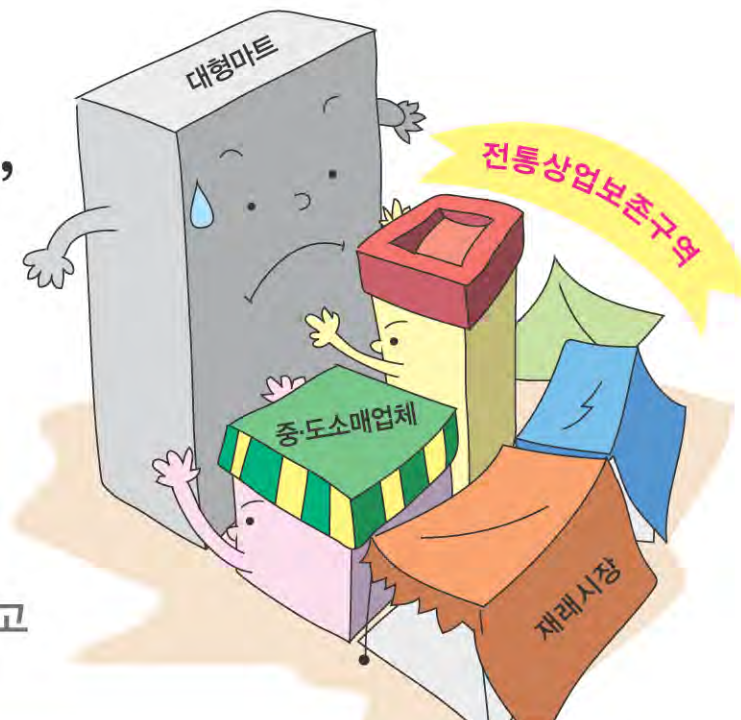
여기에다 기피산업으로 인식되다 보니 내국인의 취업은 매년 크게 줄고 있는 반면 외국인들의 고용비중이 급증하는 문제점에도 노출되고 있다. 심지어 지방기업 중에는 전체 종업원 가운데 이미 외국인 근로자가 내국인수를 넘어선 기업도 적지않은 형편이다. 특히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통한 상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도 뿌리산업 성장의 큰 걸림돌로 지적되고 있다.

대중소기업 협력이 구호성에 그칠 뿐 산업현장에서 제대로 정착되지 않고 있다는 얘기도 우리나라는 앞으로도 상당기간 경제성장을 제조업에 의존해야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지금과 같은 국내 뿌리산업의 붕괴는 어렵게 확보한 제조업경쟁력이 글로벌 경쟁관계에서 약화될 우려를 낳고 있다. GM이 구제자금지원확정에도 불구하고, 조업재개에 오랜 시간이 걸렸던 이유가 바로 미국내 뿌리산업의 부재였다는 점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미국의 경기침체와 중산층 붕괴는 제조업을 포기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정부도 이런 점을 간파하고 뿌리산업 육성에 적극 나서고 있다. 정부는 뿌리산업의 녹색경쟁력 강화전략으로 기술인재 양성, 일자리 창출, 부가가치 미래성장잠재력 확충, 녹색성장인프라 조성 등에 주력해 뿌리산업 강국을 실현한다는 계획이다.

중소기업진흥공단 역시 뿌리산업 육성에 중점을 둔 중소기업육성정책을 강화해 국가 경제발전에 기여하도록 힘을 보탬 각오다.

대구 기초자치단체, 대형마트 입점 저지 총력



지역 소상공인 보호 취지...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 조례 공고

대구지역 기초자치단체들이 대형마트 추가 입점 저지에 팔을 걷어붙이고 있다. 역외 대형 유통업체들의 무분별한 지역 진출을 막아 서민 경제의 근간인 영세 소상공인들을 보호하겠다는 취지에서다. <편집자 주>

대구 달서구는 최근 유통산업발전협의회를 열고 전통시장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1km 이내를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대구모·준대구모 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를 확정·공고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달서구지역에서 대형마트를 신규 오픈하거나 대구모 점포의 등록 내용을 변경할 경우엔 반드시 구청에 등록해야 한다. 만약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점포를 개설하거나 부정확한 방법으로 개설 등록을 할 경우엔 징역 1년 이하 또는 3천만원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달서구청 측은 이번 조치로 성서산업단지 일부지역을 제외한 달서구 전역이 전통상업보존구역에 포함돼 대형마트 추가 입점은 사실상 많은 제약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대구 중구청과 서구청도 대형마트 입점을 막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서구는 최근 이마트 비산점의 창고형 할인매장(트레이더스) 전환 승인을 거부했다. 이를 위해 행정소송도 불사하기로 했다. 창고형 할인매장이 문을 열 경우 인근 지역의 중·도소매업체들의 영업타격이 만만찮을 것으로 보고, 업체 전환을 차단하고 나선 것이다.

중구청도 최근까지 많은 소문을 낳았던 남산동의 주상복합아파트 내에 들어설 예정인 대형마트 입점을 저지하기로 했다.

지난 8월 착공한 남산동 주상복합아파트 '대구 마제스타워 남산'의 경우 지하 2층에 대형마트가 입점할 것이라던 소문이 지역 유통가에 번지고 있는 등 적잖은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주상복합아파트 인근에 위치한 남문시장과 불과 100m 지척 거리에 위치해 만약 대형마트가 문을 열 경우 영세 소상공인들의 타격이 만만찮을 것이라던 비난 여론이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이 대형마트의 경우 중구청이 지난 2월 제정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구모·준대구모점포의 등록제한을 골자로 한 조례 공고 이전에 사업계획이 승인 난 탓에 사업주가 점포 개설에 나설 경우 입점 불허를 위해선 행정소송 등 중구청 측의 부담이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중구는 그러나 대형소매점의 잇따른 입점에 따른 골목 상권 붕괴 등 주민들의 여론이 급속도로 악화되고 있는 것을 감안해 입점을 불허하기로 최종적으로 입장을 정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중구청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전통시장보호를 위해 시장 인근에 대형 소매점의 추가 입점 시도가 있을 경우엔 이를 막는데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편집국>

올해 경북 고추재배면적 다소 감소

작황부진 탓 가격 고공행진 지속



영양, 청송, 봉화 등 경북 북부지역은 전국 제일의 건고추 생산지역으로 명성이 자자하다. 경북 북부권은 해발고도가 높아 고추 생산에 최적지로 평가된다. 이 곳에서 생산되는 건고추는 품질 또한 우수해 소비자들로부터 각광받고 있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고추 재배면적 조사 결과' 자료를 토대로 올해 경북의 고추 재배면적과 생산량, 가격 흐름 등을 점검한다.

〈편집자 주〉

전국의 고추 재배면적은 최근 크게 줄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07~2011년) 전국의 고추재배면적은 지난 2007년 5만4천876ha에서 2008년 4만8천825ha, 2009년 4만4천817ha, 2010년 4만4천584ha, 2011년 4만2천574ha 등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전국 제일의 생산량을 자랑하는 경북 역시 사정은 마찬가지다. 올해 경북의 고추재배면적은 1만896ha를 기록해 전년의 1만1천699ha에 비해 803ha(6.9%) 감소했다고 통계청 측은 밝혔다. 경북의 고추 재배면적은 전국의 26%를 차지한다. 16개 시·도별 고추 재배면적은 경북에 이어 전남(7천265ha), 전북(5천432ha), 충북(4천588ha), 충남(4천428ha) 등이 뒤를 잇고 있다. 고추 재배면적이 이 처럼 감소한 것은 콩 등 대체작물과 비

교해 노동 생산성이 떨어져 재배를 기피하는 농가가 늘어난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주요 발작물의 10a당 노동력투입시간을 살펴보면 고추(167.6시간)에 비해 참깨와 콩은 각각 65.9시간, 25.8시간에 그치고 있다. 여기에다 농촌사회 고령화에 따라 일손부족 현상이 가중되고 있는 것도 한몫하고 있다.

재배면적 감소와 함께, 특히 올 들어선 기상악화에 따른 무름병 등 병충해 피해가 확산되면서 고추 생산량이 큰 폭 감소한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 때문에 최근 건고추를 중심으로 가격 강세현상은 지속되고 있다. 농수산물유통공사에 따르면 지난 10월17일 기준으로 대구지역에서 거래된 건고추 도매가격(화건 상품 60kg)은 140만 원을 기록해 1년전의 75만원보다 배 가량(65만원) 치솟았다.

통계청 사회통계국 김봉철 농어업통계과장은 "최근 3년간 전국의 고추 생산량은 지난 2008년 12만4천에서 2009년 11만7천, 지난해엔 9만5천까지 줄어들었다"면서 "고추는 노동력이 많이 필요한 대표 작물이지만 최근들어 농촌 인구 감소에 따른 노동력 부족현상이 가중되면서 재배면적이 매년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최우혁 통계전문기자

한국경제기획연구원은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대표 연구기관입니다.

지난 2001년 설립 이래 최근까지 10여년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기업체 등을 대상으로 학술 및 원가계산·검토, 경영컨설팅에 관한 연구용역 3천건 이상을 수행한 공익 학술 연구기관입니다.



TK 경영저널이 membership card 를 발행합니다.



best 경영저널이 만든 프리미엄 카드!

- ✓ TK멤버십카드는 대구·경북경제통합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발행되는 공익차원의 멤버십카드입니다.
- ✓ TK멤버십카드 회원에게는 골프장, 호텔, 테마파크 등 회원사를 이용할 경우 최대 50%까지 할인혜택이 주어집니다.
- ✓ 경영저널은 회원사와의 상생 발전을 위해 회원업체를 대상으로 무료로 경영컨설팅을 지원해 드립니다.

